



만경강 유역협의회 만경강 복원 및 발전 업무협약식이 17일 완주군 카페비비안에서 실시된 가운데 김승수 전주지사를 비롯한 이승복 군산시 부시장, 정현을 익산시장, 박준배 김제시장, 박성일 완주군수, 김철홍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전북의 젓줄 만경강, 생명의 강으로

전주·군산·익산·김제시·완주군·익산국토청, 유역 협의회 구성 협약 강 친수시설 공동으로 유지 관리·생태환경 보전과 관광 발전방안도 마련

전주시가 전북도민들의 젓줄인 만경강을 맑은 물이 흐르고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강으로 만들기 위해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군산시·익산시·김제시·완주군 등 4개 자치단체와 손을 맞잡았다. 시는 17일 완주군 삼례읍 비비안에서 김승수 전주지사와 김철홍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강임준 군산시장, 정현을 익산시장, 박준배 김제시장, 박성일 완주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만경강유역 협의회 구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주시를 비롯한 만경강 유역의 5개

기초자치단체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이 자리에서 함께 힘을 모아 만경강을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생명의 강으로 조성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협약 참여기관들은 또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만경강유역 협의회와 실무위원회를 운영기로 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이날 협약에 따라 기관 간 역할분담과 상호협력 분야를 총괄 지원하게 된다. 전주시를 비롯한 5개 시·군은 만경강 내 친수시설에 대한 공동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생태환경보전과 역사·

문화, 관광 분야의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6개 참여기관은 이날 체결한 업무협약을 구체화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민간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도 운영기로 했다. 관계기관의 장이 참여하는 협의회는 만경강 유역의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협의회 소속기관 관계자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연구원 등 유관기관, 교수, 시민단체 등 민간

전문가까지 아우르는 실무위원회는 만경강유역의 효율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앞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5개 기초자치단체는 지난 7월부터 전북의 대표 하천이자 생태·문화·역사·관광 자원이 풍부해 다양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만경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협의회 구성을 논의해 왔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5개 기초자치단체장과 김철홍 익산국토청장은 "협의회 구성을 계기로 만경강을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생명의 강으로 복원하고, 지역주민과 이용객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친수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송호철 기자·익산=우병희 기자

### 늘어만 가는 사립유치원 폐원

## 학부모들은 누가 달래나?

교육부,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4개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학습권 보호 위한 폐원 등 절차 보완에 유치원 3법 무산으로 학부모들은 여전히 속앓이... 제도적 뒷받침 필요 목소리 높아

교육부는 17일부터 40일간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4개 법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유아 학습권 보호를 위한 폐원과 운영장치 절차를 보완해 유아 또는 학부모 의지와 무관하게 교육이 중단될 경우에 대한 보호 장치가 마련된다.

폐쇄 일자를 매 학년도 말일로 명시해 학기 중 폐원을 방지하고, 유치원도 학교로 1년 단위 교육과정을 계획·운영하도록 유도한다. 또 폐쇄인가 신청서류로 기존 유아지원 계획서에 학부모 동의서를 첨부하고 정원 조차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교육감이 폐원 후 정원조치가 이뤄지는지 확인하도록 의무 규정을 마련했다. 이같은 내용은 사립유치원의 폐원에 대처하기 위해 미리 예고된 방법이기도 했다.

하지만 상처받은 학부모들은 여전히 속앓이만 하고 있다. A 학부모는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맡게 볼까 봐 유치원측에 아무말도 할 수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이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학부모들이 병어리 병기습만 앓고 있다. 12월 임시국회에서 '유치원 3법' 등 입법 현안을 적극 논의해 처리하

기로 했지만,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난 11일 이석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은 "이렇게 명예가 떨어진 채 폐원하지 말고 같이 노력하자"고 밝혔지만, "정부와 사립유치원 간의 입장 차이는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폐원을 검토하는 사립유치원들은 갈수록 늘고 있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유치원 폐원 협의 76개원, 폐원 신청 8개원, 폐원 승인 1개원 등 85개원이 폐원을 추진 중이다. 이는 지난 19일 기준 70개원에서 15개원 늘어난 수치다.

이렇다 보니 유치원 3법 무산 이후 줄줄이 폐원이 되는 유치원들을 보며 학부모들은 안심하고 자녀들을 유치원을 보낼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두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공공립유치원을 증설하고, 배정 못 받는 아이들을 재배치하겠다는 정부 발표에도 불안한 게 사실"이라며 "정말 내 아이라는 생각으로 대책을 발표하고,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절실함을 드러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40일간 입법예고하고, 이 기간 중 의견수렴을 해서 규제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2019년 상반기 시행 예정이다. /잠은성 기자

### 도, 내년 사자성어 '절차탁마(切磋琢磨)'

전북도가 2019년 사자성어로 '절차탁마(切磋琢磨)'를 선정했다. 17일 도에 따르면 내년도 사자성어로 '절차'와 과정을 중시하며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자 라는 의미가 내포 돼 있는 절차탁마로 결정했다. '절차탁마'의 본래의미는 '여절여차 여탁여마(如切如磋 如琢如磨)'의 如 글자를 뺀 준말로 '원석을 자르

고 줄로 쓸고 끌로 쪼고 갈아 빛을 내는 데 오랜 정성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을 담고 있다. 시경의 위풍편(詩經의 衛風篇)과 논어(論語)의 학이편(學而篇)에 '옥이나 돌을 끊고 닦고 쪼고 간다는 말로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함'을 일컫는 말이다. /김진성 기자

매일 INDEX  
3·6면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    4면 -효천지구 교통체증 해소되나?    5면 -'자사고 재지정 기준 상향'    16면 -제11회 전북도의회 연말 결산

http://council.jinan.go.kr

### 더 큰 열정으로 진안군민의 뜻을 모아

## 군민의 생각이 곧 의회의 생각이 되는 진안군의회가 되겠습니다.

항상 열린 의정으로 군민의 말에 귀 기울이고 군민이 원하는 올바른 의회로 진안군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진안군의회**  
http://council.jinan.go.kr

제8대 진안군의회 | 군민의 뜻에 귀 기울이는 바른의회!